2025-12-29

Economy Brief

26년 1Q 수출 그린 라이트: 군계일학 반도체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26년 1분기 수출 경기는 25년 4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임

반도체 수출경기 호조 지속이 국내 수출 경기를 여전히 견인할 것임. 26년 1분기 반도체업종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87.6으로 25년 4분기 대비 41.8pt 상승함

'3저(저유가, 저금리,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효과 + 반도체 슈퍼 랠리'가 국내 경기와 주식시장 견인 지속

26년 1분기 수출 전망 양호

26년 1분기 수출에 그린 라이트가 켜졌다. 무역협회가 발표하는 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15.8로 25년 4분기 101.4대비 4.4pt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115.8은 지난 24년 3분기 116.0 이후 최고치다. 참고로 24년 3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10.5%의 두자리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품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보면 단연코 반도체 수출 전망이 압도적이다. 26년 1분기 반도체업종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87.6으로 25년 4분기 대비 41.8pt 상승했다. AI용 HBM 수출 확대 및 범용 메모리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년 1분기에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이외 선박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26년 1분기 선박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47.2로 25년 4분기대비 26.9pt 상승했다.

이 밖에도 그 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철강/비철금속제품(26년 1분기 EBSI, 111.3), 화학공업제품(105.4)의 수출전망이 다소 개선되었고 자동차수출도 26년 1분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EBSI는 25년 4분기 69.3에서 26년 1분기 95.8로 큰 폭 상승했다. 반면 전기/전자제품 EBSI는 25년 4분기 93.4에서 26년 1분기 70.4로 수출 전망이 악화되었다.

4분기 국내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26년 1분기에도 반도체 슈퍼 랠리가 국내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 양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이번 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을 보면 국내 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동시에 시사해주고 있다.

'3저(저유가, 저금리,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효과 + 반도체 슈퍼 랠리'가 국내 경기와 주식시장 견인 지속

반도체 슈퍼 랠리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26년 글로벌 경기 모멘텀으로 예상했던 '3저(저유가, 저금리,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효과'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 미 연준의 경우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reserve management purchases, RMP)'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공산이 높고 차기 연준의장 선임 이후에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음은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재차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국내 1분기 수출경기에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것은 이처럼 '3저(저유가, 저금리,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효과 + 반도체 슈퍼 랠리'에 기반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영향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림1. 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25년 4분기 대비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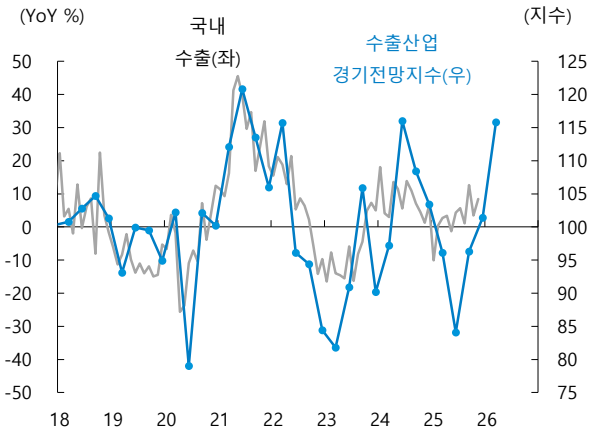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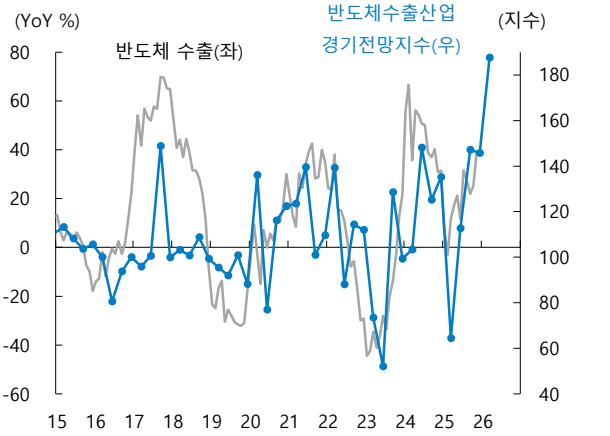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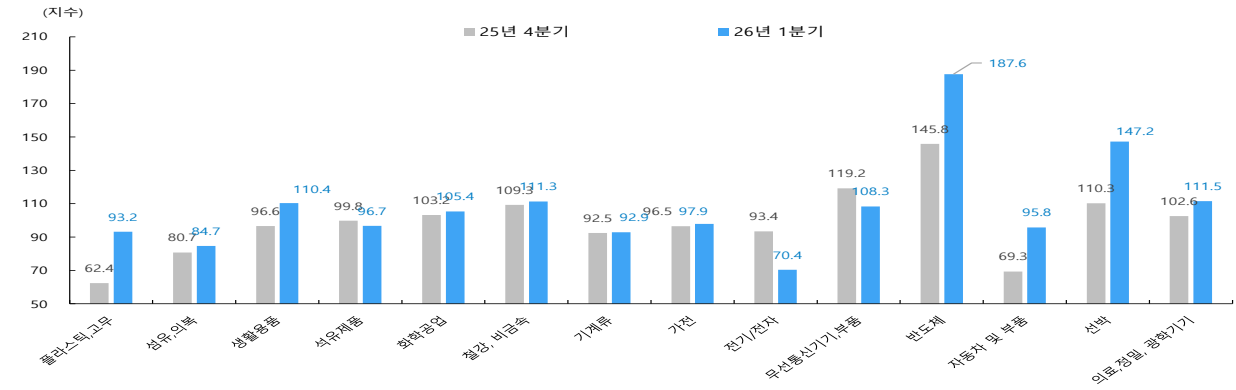


그림2. 26년 1분기 반도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급등하는 등 반도체 슈퍼 랠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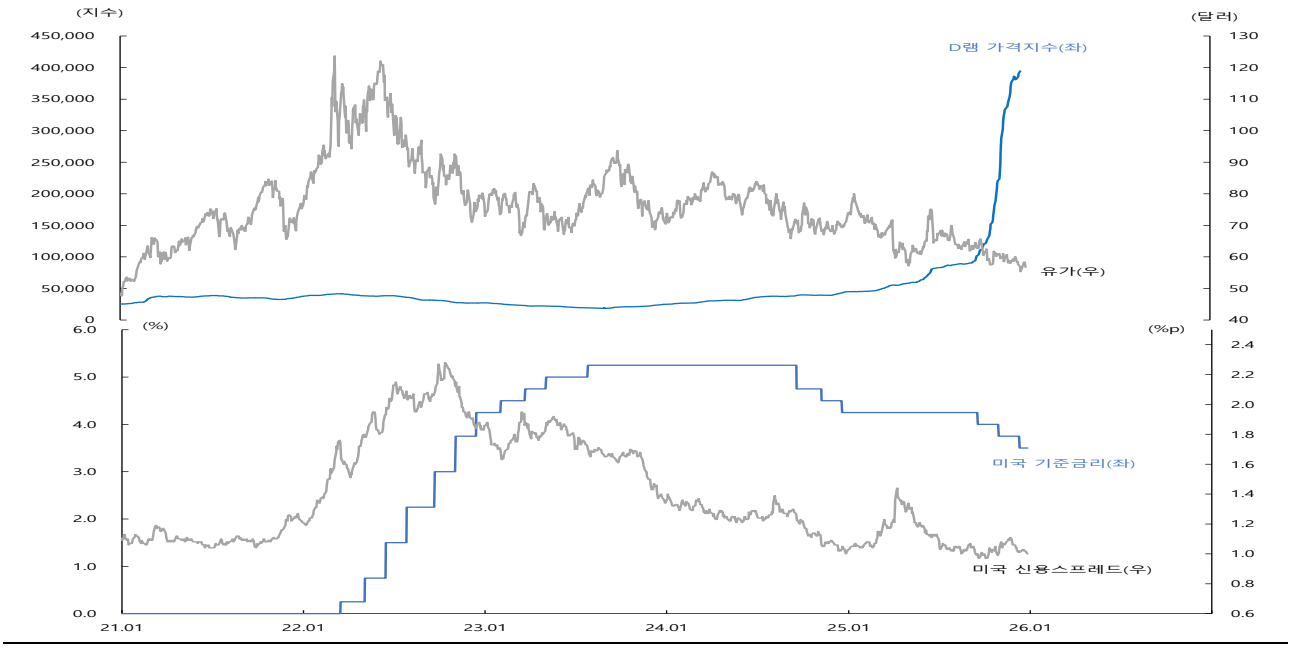
자료: 한국 무역협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주요 수출제품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자료: 한국 무역협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3저(저유가, 저금리,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효과 + 반도체 슈퍼 랠리' 효과가 당분간 국내 수출 및 경기사이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